

“4세대 실손 1년간 반값”... 보험업계, 적자 줄이기 ‘안간힘’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저조
실손보험 손실액 매년 증가세
1~3세대 가입자 중 전환시 혜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이미지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모집에 나섰다. 저조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률에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까지 내걸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2만건으로 전체 가입 건수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보험이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한다. 또 도수치료, MRI 등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일부 병·의원들과 가입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바로 잡겠다는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판매 이후 지금까지 약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했다. 이에 따라 일

각에서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도덕적 해이도 빈번한 상황이다. 도수치료, 백내장치료 등을 통해 실손보험을 타 가는 사례가 많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10.4%된 수준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2018년 1조3594억원 ▲2019년 2조4774

억원 ▲2020년 2조4229억원으로 매년 손실액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등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다.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손해율 개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손보협회는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신청하면 50%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1·2·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라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보고, 보험료 부담 어려움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한 편이어서 병원 이용 등이 잦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싸게 보험료를 내는 쪽으로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을 평균은 약 14.2% 수준에 달한다.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로 결정됐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의 경우 평균 16% 수준 인상된다. 따라서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른 것이다.

한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10년 넘게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 번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며 “도수치료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내 보험료가 올라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백지연 기자 wkus0248@metroseoul.co.kr

美연준에 흔들리는 비트코인... 이번주 ‘운명의 갈림길’

지난주 FOMC 의사록 공개 후 폭락
비트코인 4만1000달러대 ‘하락세’
美 연준, 내일 베이지북 공개 촉각
추가급락 vs 4만달러 유지 ‘분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10일 오전 510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거래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어 기술적 지지선으로 평가되는 4만 달러(약 4800만원)가 유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4만1000~4만7000달러(약 5000만~5600만원)대의 가격에 거래되면서 변동성이 높았다. 비트코인이 4만1000달러 대를 보인 것은 지난 해 9월 말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3300달러(약 396만원)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고점 대비 각각 37.8%, 32.7%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 배경으로는 지난 5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되

면서 시작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종료 시점도 올해 3월로 앞당긴 만큼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지만 오는 12일 이후 또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연준이 오는 12일 미국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공개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로 올해 첫 FOMC에서도 연준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베이지북 결과에 따라 올 해 연준 금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날 인플레이션 관련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 12월 CPI에도 촉각을

끈두세우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연준의 긴축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어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6.8%)을 넘어설 지도 관심이다. 실제 지난 11월 CPI 발표가 났을 때 비트코인은 5% 급락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3일(현지 시간)에는 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나온다.

이처럼 암호화폐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준의 한마디가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통상 1월 비트코인은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연준이 준비한 이벤트가 많아 암호화폐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준과 더불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코로나 확산 ‘고용 충격’ 실업급여 다시 1조 전망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반영되는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 지출이 다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11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1억원(15.2%) 줄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8114억원
년 달 연속 1조원 아래지만
이번달부터 실업자 증가 예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1조원대를 넘어섰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9월 처음 1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4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며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5.5%)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정부의 공공 일자리 종료로 공공행정 분야에서 신규 신청자가 1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만2900명), 건설업(1만2700명), 도소매업(1만400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 지급액도 다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에 오미كرون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고용 시장에 끼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데다 작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대형마트는 PB가 효자... 매출 30% 증가

>> 1면 ‘가성비냐, 가성비냐’서 계속

이 제품은 새우 함량을 2배로 늘리고 이탈리아산 블랙 트러플을 넣어 기존 제품보다 700원 가량 비싸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은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새우깡 블랙은 출시 2주 만에 220만 봉 판매고를 기록했다. 출시 6주 만에 500만봉이 팔렸다.

중합식품기업으로 변신한 하림은 프리미엄 즉석밥과 라면으로 시장에 출사

표를 던졌다. 하림은 지난해 ‘The미식장인라면’을 출시하며, 봉지라면 가격으로 2200원, 컵라면은 28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하림은 장인라면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 대비 차별화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기존 제품 대비 비싸더라도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소비자를 정조준했다. 이에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봉을 돌파했다. 즉석밥의 경우 개당

2100원으로 산도조절제와 보존제 등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식품업계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는 반면, 대형마트 업계는 가성비를 내세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물가 상승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한 것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표 PB 피코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롯데마트

는 1월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PB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9% 늘었다. 특히 라면, 우유, 생수 등 필수상품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라면은 100% 성장했고 우유, 생수는 31.5%, 15.2% 늘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에 따르면 지난해 ‘순백목장우유’ ‘순백목장 동물복지요거트’ 등 2종이 우유, 요거트 카테고리 내 매출 1위에 올랐다. 두 상품 모두 프리미엄급 상품이지만 각각 3780원, 3980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